10월의 기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1.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성회와 DCEM의 선교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2.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3. DCEM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해외 성회 준비 가운데 DCEM과 모든 준비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으사,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4.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 이 땅에 동성애와 이슬람 문화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여주시옵소서.

6.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가난과 질병, 지진의 피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7. 이 땅의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기도하며 성장해 나아가게 하시고, 통일 한국을 준비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셔서 이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 아멘-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우리가 즐겨 먹는 꿀 한 숟가락은 꿀벌이 4200번이나 꽃을 왕복하며 얻어진다고 합니다. 작곡가 하이든은 800개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가장 유명한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는 800번이라는 작품을 써본 후 그의 나이 66세가 되어서야 완성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도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반복한 결과로 그려진 명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도 이처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참고 해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대상을 정하고 또는 성취하고자 하는 일을 정하고 이루어지길 바라며 꾸준히 인내하며 나아 갈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설교 한편 짓는데 몇 시간만에 뚝딱 지어서 성도 앞에 나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설교는 절대로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설교 한편에 적어도 한 달은 고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관계된 책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종이에 적고 또 새로 적어서 설교 한편이 이루어지면 성도들 앞에서 은혜롭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쉽게 된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애써서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목표를 정했으면 끊임없이 인내하며 참고 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은 인내와 연단을 신앙 성장의 기초로 삼으십니다.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참으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인내의 힘은 인생의 산사태를 막아 주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인내의 결여는 사람을 어렵게 만듭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에도 실패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다리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순복음동경교회,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인규, 박예림, 순복음정릉교회(조종숙목사),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그리고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KEB하나은행)
예 금 주 : 디시이엠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January News Letter DCEM
조용기 목사, 2012년 신년축복대성회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개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생명력 있는 교회 될 것 믿부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11th Floor CCMM Building, 101 Yeouigongwon-ro,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41
Tel. (02) 6181-5064 Fax. (02) 761-9156
E-mail : dcem@davidcho.com http://www.davidcho.com

October News Letter DCEM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2016 CGI 컨퍼런스 미국 루이빌서 개최

세계교회 성장의 열쇠,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찾다
아프리카•남아메리카•유럽 등 목회자 1000여 명 참석 뜨거운 관심

'세계최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회성장 비결은 무엇인가' 전 세계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다. 일부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세계최대교회를 일군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지금도 교회는 성장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는 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매년 열리는 CGI컨퍼런스(Church Growth International Conference)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 위치한 EWPC(Evangel World Prayer Center)에서 열린 2016 CGI 컨퍼런스도 예외는 아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교회성장 비결을 알기 위해 미국은 물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모인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CGIA(Church Growth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이번 성회는 현지 시각으로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되었으며, DCEM 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목사이며 CGI 이사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도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나이를 초월해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의 함성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 성회를 주최한 CGIA(Church Growth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대표인 밥 로저스 목사를 비롯해 리차드 버날 목사(미국 쥬빌리크리스천센터), 마가렛 코트 목사(호주 빅토리 라이프 센터) 등 CGI이사들도 참석해 CGI를 통해 얻은 교회성장의 원리를 적용한 결과에 대해 간증하며 이번 컨퍼런스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10월 12일에 열린 세미나에 앞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해외사역 소개 영상이 방영됐다. 참석자들은 조용기 목사의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선교사역의 생생한 모습에 감동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화답하며 조용기 목사를 환영했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한다. 성령은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신다. 어떠한 경우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부흥은 힘들다고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조용기 목사는 "교회는 꿈꾸는 사람이 있으면 부흥한다. 밥 로저스 목사는 꿈꾸는 사람이다. 미국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꿈을 꾸었다. 나는 지금도 그에게 꿈꾸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조언한다"며 "나는 작은 천막교회에서 성도 5명으로 시작했지만 세계 최대교회를 세우는 꿈을 꾼 결과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500개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신문사를 세울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조용기 목사는 성령과의 교제를 강조하며 "성령을 통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 질 것을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며 컨퍼런스에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의 강한 성령의 메시지에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성회에 참석한 패트릭은 "강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며 컨퍼런스를 통해 미국 교회가 보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분명한 꿈과 비전이 생겼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11층 DCEM 07241
Tel. (02) 6181-5064 Fax. (02) 761-9156
E-mail : dcem@davidcho.com http://www.davidcho.com

예수님을 믿는 자도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1. 예수님도 당하신 고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어 배가 전복되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도 그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너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풍랑이 심히 일어났는데도 배 안에서 주무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고난을 바라보고, 그 의미를 알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38절에 보면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랑 때문에 절망적으로 좌절한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즉시 잠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막 4:39)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당하셨지만,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원수들을 다스려주신다고만 생각했지, 바람과 바다를 다스린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바람을 다스리시고 바다도 다스리십니다. 또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고난을 극복하는 십자가의 은혜

고난을 극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으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히 2:18)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고난을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올라타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라는 수레가 우리를 태우고 고난에서 축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큰 기쁨으로 살 때에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주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나쁜 일도 안 했는데. 이 고난을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이 고난이 네가 꿈꾸고 있는 영광에 도달하는 시발점이다. 고난의 길이 너의 운명이 출발하여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은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바라보고 고통을 바라보지 마라. 나를 바라보면 네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겠다"

긍정적인 생각, 확고한 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창조적인 말씀의 선언을 성령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큰 축복으로 이끄는 수레이므로 고난이 올 때 너무 피하려고 애쓰지 말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련이 꿈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출발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3. 예수님을 모신 성도의 정체성

풍성한 열매를 가지려면 그 조건을 구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과나무가 무조건 사과를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햇빛도 있어야 하고, 적당한 비도 내려야 하고, 온도도 적당해야 합니다. 또 병충해도 입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확고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선언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같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꿈꾸는 사람이어야 성령이 와서 같이 꿈을 꾸어주지요. 믿음을 가져야,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믿으면 성령이 와서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로 41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환난, 고통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나 환난과 고통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곳에 계신 것입니다. 소원을 갖고 꿈을 꾸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령이 같이 와 계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데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귀신이 와서 역사하지만, 그 뒤를 성령께서 따라와서 만사가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과 곤고나 시련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공을 갖다 주는 것을 알고, 믿고, 감사 드리게 되시기 축원합니다.

2016 CGI 컨퍼런스 이모저모

국제교회성장연구원(Church Growth International, CGI)은 1976년 설립된 단체로 교회성장비결인 DCEM 총재 조용기 목사의 강한 성령의 메시지, 여의도순복음교회만이 갖고 있는 구역조직 등을 전 세계에 보급, 세계 교회들의 건강한 교회성장을 돕고 있다. 실제로 매년 열리는 CGI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성장 비결을 배워 목회에 적용한 결과 폭발적인 교회성장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특히 일부 지역이나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가, 인종을 넘어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와 폭발적인 교회부흥이 특징이다. CGI 컨퍼런스는 현재 190여 개국 2만여 목회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한국과 회원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2016 CGI 컨퍼런스는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열렸다. 성회 개최지인 루이빌 EWPC(EVANGEL WORLD PRAYER CENTER)에는 CGI 이사인 밥 로저스 목사와 그의 부인 마가렛 목사 그리고 딸 레이첼 목사가 시무하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0월 12일 CGI 컨퍼런스에 참석한 CGI이사들과 회원들은 컨퍼런스가 열린 EWPC 인근에 위치한 클라우디아 샌더스라는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CGI 총재 조용기 목사와 CGI이사진들은 12일 오찬 후 이사회를 열고 2017년 CGI 컨퍼런스 개최 및 CGI 대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밥 로저스 목사는 세계 곳곳에서 참석한 이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CGIA(Church Growth International of the Americas) 소속 목회자들을 CGI 이사들에게 소개하고 미국 남부와 남아메리카 소속 목회자들과 함께 교회연합과 교회부흥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CGI 이사회에서는 2018년 CGI컨퍼런스를 60주년을 맞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2017년에는 미국 쥬빌리크리스천센터(담임 리차드 버날 목사)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재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밥 로저스 목사,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DCEM 사무총장, 순복음동경교회), 에드윈 알바레즈 목사(파나마 호산나 국제 선교회 대표), 마가렛 코트 목사(호주 빅토리 라이프 센터), 제임스 마르코 목사(미국 킹스 캐더럴 앤 채플), 리차드 버날, 리차드 로버츠 목사(오랄 로버츠 선교 연합회) 등 CGI 이사들을 비롯해 윤석호 목사(CGI 부장), 김종복 장로(4차원영성글로벌포럼회장) 등이 참석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베데스다 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성회 인도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10월 1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나성순복음교회에서 베데스다 대학교 개교 40주년 기념 축복 부흥성회를 인도했다. 지난 1976년 조용기 목사에 의해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시에 세워진 대학으로 정식학위를 받는 미국정규대학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 임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나성순복음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김충남 목사(순복음산호세교회 담임)의 기도, 이상호 목사(주님의 기쁨교회 담임)의 성경봉독과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졌다.

'사마리아 복음증거'(행 8 :4~8)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조용기 목사는 "평신도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다.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과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러한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성령충만과 죄 사함, 병 고침,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조용기 목사는"오늘날 성령의 시대를 맞아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역사한다. 또한 긍정적, 창조적 생각을 하는 사람과 함께한다. 마음에 분명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목적지로 이끌어 주신다"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 학교와 교회 나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베데스다 대학교는 성회에 앞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해 지금까지 베데스다 대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는 DCEM사무총장이자 순복음동경교회 담임인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함께 하여 은혜를 더 하였다.